

# “科學技術창달이 國家發展에 직결

- 科總을 國民에게 올바르게



존경하는 科學技術處 李台燮長官님  
그리고 과학기술계 元老, 先輩님을 비롯한  
會員團體 代議員 여러분

희망과 약동의 1987년 새봄을 맞이하여 오  
늘 본인이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科總은 지난 19  
66년 創立 이래 20개 星霜을 지나 오늘로서  
스물두번째의 總會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科總은 成年이 되어 지금까지 이룩  
한 업적을 더욱 內實化하고 앞으로 2000년대  
의 主役이 될 수 있도록 발전과 정진을 계속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있음을 깊이 인  
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半世紀동안 우리나라는 科學技術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매우 비약적인 발전  
을 거듭해 왔고 더우기 2000년을 향한 福祉  
社會建設이라는 至上課題앞에 지난 해에는  
처음으로 國際収支黑字를 기록함으로써 우  
리경제는 자력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韓半島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力學關係는 매우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  
니다.

신진국의 技術保護障壁을 비롯한 保護貿  
易主義, 市場開放압력, 物質特許강요 등 불  
확실한 요인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 우리  
모든 科學技術人들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  
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  
전 장기계획의 첫 해입니다.

아직 연구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연구  
비의 부족 등으로 長期開發研究의 취약점도  
없지 않으나 앞으로 科學技術處의 적극적인  
主導와 과학 기술인의 능동적인 참여에 힘입  
어 우리는 産業國家발전이란 大望의 2000년  
대를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1백만 科學技術者의 집  
결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科總의 사명은 매  
우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자리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  
들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科總會員 여러분의  
衆智를 모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科學技術政  
策 調査研究活動을 강화하고, 學術活動의 지

# “된다”는 使命感으로 總力 競走”

## 널리 알리는 일에도 力點

원과 國際學術活動을 진작하며 產學협동 및 元老科學技術諮問團 운영의 활성화 등으로 연구개발환경을 보다 새롭게 조성하여 우리 科總의 사명완수에 박차를 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재임기간 동안 국가발전에 직결될 수 있는 科學技術政策에 따라,

첫째, 大學·研究所·產業界와 科學技術人의 기능적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둘째, 基礎科學의 육성과 學會學術活動의 내실을 기하며,

셋째, 해외 科學者의 장기유치 및 국내 科學者의 파견등 학회학술활동을 전개하고

넷째, 科學技術振興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며,

다섯째, 科學技術振興政策 건의등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美洲地域을 비롯한 구라파지역, 日本지역 등 全世界 각국에 체재하여 있는 우리 僑胞 科學者들을 초청하여 국내 學者들과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심층토의하는 대규모 國際會議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會員團體와의 대화를 통하여 學會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학술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學會發展을 위한 기반을 굳게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大學에 대한 투자가 곧 유능한 研究人力의 양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研究開發費의 많은 부분을 大學에 배분하도록 힘쓰는 한편 科總의 새로운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고, 科總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그리고 널리 알리는 일에도 力點을 두고자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本人은 『科學技術暢達이 곧 국가발전과 직결되며, 우리의 부단한 연구와 자질향상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科學技術處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기관, 그리고 產業界와 言論界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완수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난 20년간 科總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金東一상임고문님, 閔寬植 명예회장님, 趙完圭 前회장, 그리고 元老 여러분을 비롯한 任職員과 會員여러분의 정성어린 勞苦와 功勞를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높이 致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과 科學技術界의 元老, 先輩, 동료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萬福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就任辭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2월 2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會長 朴 泰 源